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김연수의 《모두에게 복된 새해—레이먼드 카버에게》

한혜경 · 명지전문대학 문예창작과 교수, 문학평론가

1. 소통의 가능성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다른 자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가?

과학의 발달로 생활은 윤택하고 편리해지는 데 비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날로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음이다. ‘소통과 화합’이 정치인들의 구호로 떠오를 정도로 소통 부재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현안이 된 지 오래이다. 효율성을 강조하고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타인의 상황이나 고통에 관심을 갖기는 어려워지므로 타자에 대한 상상력과 공감이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설가 김연수(1970~)에게도 소통은 중요하다. 김연수는 1993년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으나 1994년 장편소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로 제3회 작가세계문학상을 수상한 이래 많은 소설들을 발표해 온 작가이다. 《나는 유명 작가입니다》(2005)에서 그는 인간이 과연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의혹을 품는다. “인간이라는 게 과연 이해받을 수 있는 존재인일까?”라고 물으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을 이해하려 든다는 것은

무모한 열정이었다.”(《그건 새였을까, 네즈미》중)라고 고백한다. 하지만 《세계의 끝 여자 친구》((2009)에 이르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지만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 희망을 느낀다고 ‘작가의 말’에서 토로한다. 그래서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따라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한,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것이다.

곧 김연수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이들이 비슷한 고통을 안고 있는 타인과 교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고통이란 자기를 둘러싼 이해의 껍질이 깨지는 일’(《산책하는 이들의 다섯 가지 즐거움》중)이라고 할 때, 이 고통으로 인해 세계로부터 고립되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타인의 고통을 만나면서 그들과의 소통이 가능하게 됨을 소설로 그려 내는 것이다.

2. 모두에게 복된 일—교감과 소통

《모두에게 복된 새해》(이하 《모두에게》로 칭함)에는 ‘레이먼드 카버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작품집 뒤에 실린 ‘작가의 말’을 보면 “다 쓰고 몇 달이 지난 뒤에야 그즈음 한창 번역하던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하고 있다.

레이먼드 카버(1938~1988)는 미국의 유명한 단편 작가로 김연수가 번역한 작품은 단편집 《대성당》이다. 그중 표제작 《대성당》은 아내의 옛 친구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남편을 화자로 하여 그가 느끼는 소외감과 선입견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그린 작품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문자가 맹인이라는 사실이다. 가까이에서 맹인을 본 적도 없고 맹인에

대한 생각은 영화에서 본 것이 전부인데다 신중한 성품이 아닌 화자는 이런저런 실수를 하게 되고, 그것을 아내는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러나 화자가 소외되어 있음을 감지한 맹인의 배려에 의해 화자의 불편함이 조금씩 풀어진다. 작가 스스로 자신의 이전 작품들과 ‘개념적으로나 작법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던 작품으로(캐롤 스크레니카, 《레이먼드 카버—어느 작가의 생》), 화자와 맹인이 함께 대성당을 그리면서 따뜻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장면은 감동적이다.

《모두에게》는 카버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아내의 친구가 방문하는 이야기이다. 아내의 친구가 맹인이 아니라 한국말이 서툰 인도인이라는 점이 다르다. 《대성당》이 화자에게 불편한 대상이었던 맹인 친구와 후반에 가서 훌륭한 교감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면, 《모두에게》는 부부 각각의 외로움이 방문자와의 이야기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이야기이다. 곧 전자가 맹인과 화자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면 후자는 인도인과 화자, 아내로 이루어지는 입체적인 관계를 다루고 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아내의 친구인 인도인이 피아노를 조율하기 위해 ‘나’의 집을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한다. 아내는 아직 귀가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이 낯선 방문객을 맞이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단순히 보이는 이 이야기에는 모두 세 개의 관계가 얹혀 있다. 곧 ‘나’와 인도인, 인도인과 아내 혜진, 그리고 ‘나’와 아내의 관계가 그것이다.

먼저 ‘나’와 인도인의 관계는 원활하지 못하다. 사트비르 싱이라는 이름의 이 인도인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쓰지 않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쓰고 왔다면서 핑크빛 터번에 얼굴의 절반이 턱수염으로 뒤덮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인도인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미리 전해 들었음에도 막상 문을 열고 그를 보자 ‘당황스러’워 한다.

지금껏 화자는 인도 사람을 만나 본 일이 없으며 ‘그렇게 턱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을 쳐다본 일도, 그렇게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을 잡아
본 일도’ 처음이다. 거기에 그의 한국어가 서투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소통은 매끄럽지 못하다.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 친구가 내게 말했다.

“이 피아노, 어떻게,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그 말을 그대로 따라 했다. 그러자 이 친구는 쟁쟁게 “왔습니
까?” 라고 말을 고쳤다. 저 피아노가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게 됐는
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외롭기 때문입니다.”

“이 피아노 외롭습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피아노가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외롭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 잠시
망설이는 사이, 이 친구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건반을 하나 눌렀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과정
이 둘 사이의 대화에서 드러난다. 단순한 대화는 이루어지지만 그들 부
부의 외로움을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인도인이 “혜진의
마음, 혼자입니다.”라고 할 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 난감해하던
‘나’는 인도인이 그린 그림을 보고서 비로소 그가 뜻하는 말을 이해하
게 된다. 인도인이 아기일 때 숲 속에서 홀로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 울
고 있는데 코끼리가 곁에서 지켜주었다는 이야기를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혜진이 영어로 “Always I wanted a baby. I
want to be the elephant like this. I am alone. I feel lonely.”라고 말
했음을 알려주자 비로소 ‘나’는 인도인이 말하고자 한 바를 깨닫는다.
곧 인도인과 ‘나’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화자는 비로소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lonely'라는 게 무엇인지는 알고 있지만, 다만 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 것인지 알지 못해서.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가. 그게 무슨 상관이었는가. 나는 가만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숲과 잠에서 깬 아이와 사원의 기둥처럼 늪름한 다리를 가진 코끼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혼자 중얼거린다. 저는 외롭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고독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저는 쓸쓸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마치 눈 내리는 밤에 젖지 않는 개와 마찬가지로 저는…….

아내와 인도인과의 관계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경우이다. 아내가 시트바르 싱을 알게 된 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에서이다. 아직 한국어가 서툰 인도인과 한국어 선생인 아내가 '말하자면 친구'인 사이가 된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이다. 다른 언어를 쓰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은 마음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아내와 인도인의 교감은 서툰 언어 실력으로는 '서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다는 일반적 상식을 넘어서 있다. 진정한 교감은 언어에 의한 전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아픔을 공유해 줄 때라는 사실을 이 두 사람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

때로 아내와 얘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아내는 그저 잠자코 자기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으니까. 그렇게 지난 가을부터 이 친구로서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예컨대 인생의 고비마다 느꼈던 절망이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 꿈들, 그런 게 아니라면 하다못해 좋아하는 색깔과 감명 깊게 읽은 책 따위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중얼

중얼 들려준 것인지도, 또 그런 걸 가리켜서 “말하자면 친구” 사이라고 한 것인지도.

즉 ‘나’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들어 줄 마음이 없었으므로 아내는 남편 대신 인도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 장면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이야기를 들어 준다는 것이 소통의 첫 번째 단계임을 웅변하고 있다. 친구란 대화가 가능한 ‘대화 상대’라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다. ‘그저 잠자코 자기 이야기를 들어 줄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닐까는 생각’이 들기는 했으나 들어 주지 못한 남편 대신 들어 주는 사람을 찾아 자신의 외로움과 힘든 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와 아내의 관계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부부간임에도 대화가 사라진 사이임을 보여 준다. 그들에게 숨겨진 아픔은 아기에 관한 것이다. 10여 년 전 이 부부는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핫카이도로 ‘이별 여행’을 떠났다고 했는데, 아마도 아기를 잃고 난 뒤 떠난 것으로 여겨진다. “힘든 건 마음이 힘든 거고, 고통은 몸이 고통스러운 거 아닐까?”라는 아내의 구분법으로 본다면 아기를 잃고 ‘힘든’ 마음이 치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이들 부부에게 아픔으로 남아 있는데, 서로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가령 ‘나’는 아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정작 아내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피아노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서운함을 노출시키는 장면이다. 아내가 어릴 때 체르니 40번까지 피아노를 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나’는 낡은 피아노를 그냥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무가지에서 읽고 찾아간다. 병원에 누워 있는 노인은 자신에게 정말 소중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담긴 피아노라며 가져가라고 한다. 이혼한 엄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떠난 딸이 치던

피아노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피아노라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이다. 심지어 자신이 이 피아노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화자로서는 아내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단지 “아내는 내가 왜 저 피아노를 여기까지 가져와야만 했는지 이해했을까? 완전히 이해한 것이라면, 어떻게 내게 저런 아무런 쓸모도 없는 피아노라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해 불가능은 아내에 대한 섭섭함과 저녁마다 아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느라 집을 비울 때 홀로 남아 느끼는 외로움으로 남게 된다. 그래서 화자는 아내가 인도인과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에 “그래서 날더러 어찌라고?”라는 반응을 보인다. 아내 역시 이러한 남편의 반응에 “당신더러 어찌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건 잘 알잖아, 그치?”라고 답한다. 결과적으로 두 부부 사이에 대화는 줄어들고 아내는 남편 대신 인도인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소원해진 부부 사이는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 회복된다. 홀로 울고 있는 아기에게 코끼리가 나타나 보호해 주는 그림을 보며 아내가 아기를 원하는 마음과 외로움을 토로했음을 알게 되면서 화자 역시 자신의 외로움을 인지하는 동시에 아내의 외로움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3.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의 끝 여자 친구》의 ‘작가의 말’에서 김연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우

리는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아,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네가 하는 말의 뜻도 나는 모른다, 라고 말해야만 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곧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으므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행위’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작가는 《모두에게》에서 한국어가 서툰 인도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아픔을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적인 단계임을 보여 줌으로써,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그려 내고 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유한다면 언어상의 문제, 언어 구사 능력 같은 것은 상관없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들이 곳곳에서 꽃처럼 피어난다면 우리 삶은 살아 볼만하지 않겠는가.